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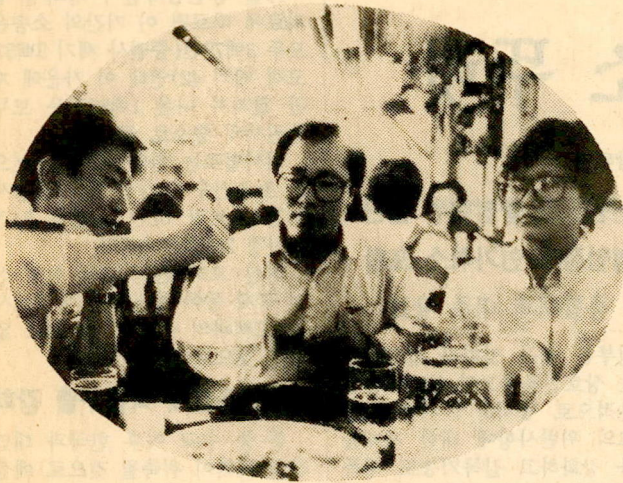
직장인 술문화가 달라진다

직장인 술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2차, 3차로 이어지던 모습이 사라지고 가볍게 한잔씩 하고 헤어지는 새로운 형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직장생활 6년째인 금성사 가전연구소 연구원 황선웅(32)씨는 "직장생활 초기 때만 해도 일단 마셨다 하면 으레 3차 정도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요즘은 술 마시는 횟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거의 1차에서 끝나고 2차, 3차까지 계속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한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6년째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는 강수학씨도 "직장인들이 마시는 맥주량이 최근 들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마시는 시간도 1~2시간으로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다"면서 "이제 퇴근 뒤면 으레 술집에 들러 습관적으로 밤 12시 넘어서까지 마시던 직장인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술소비량이 9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92년 상반기 월평균 술소비량은 26만kℓ로 29만kℓ였던 90년 상반기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1명당 월평균 술소비량도 90년 상반기의 6.7ℓ(6백40ml 맥주 10병)에서 92년 상반기에는 5.0ℓ(6백40ml 맥주 7.8병)로 25.3%나 줄어드는 등 전반적 술소비량 감소세는 뚜렷하다.

또한 국세청 자료분석결과 유



2차, 3차까지 계속 마시는 술자리보다는 가볍게 한잔씩 하고 헤어지는 술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장철규 기자>

‘밤늦게 2·3차’ 거의 사라져 신입사원 폭주 강요도 옛말

홍업소 등 접객업소와 가정용 술소비량의 비율이 90년에는 51대49였지만 올해에는 42대58로 오히려 가정용 술소비량이 더 많아진 것도 술문화 변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다.

가정소비, 업소 앞질러

술집 등에서 2차, 3차까지 계속 마셔대는 술문화가 사라져가

고 집에서 친지, 식구들과 조용히 마시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사는 회사원 정지석(34)씨는 요즘은 밖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저녁식사 뒤 집에서 부인과 포도주 등을 간단히 즐길 뿐이다. 물론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술습관이 바뀐 경우지만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집 등에서의 피곤한 술자리를 피해 가정에서 아내 또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시는 짧은 부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강중시·자가용족 증가 탓”

술 못 마시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풍토가 사라져가는 것도 변화의 뚜렷한 조짐이다. 삼성전자 김태한 과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 신고식때는 큰 사발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이 예의였지만 요즘은 신입사원이라도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더이상 권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평소 술을 전혀 못 마시는 공무원 정용식(41·서울 강남구 신사동)씨는 요즘은 동창회 등의 모임에 참여해도 별 부담이 없다. 맥주, 소주, 양주 등 각종 술을 종류별로 갖다 놓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술을 자신이 직접 잔에 부어 마시도록 하는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배를 할 때도 자신이 직접 잔에 부어 마시고 술잔 돌리기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반적 경기침체, 가정이나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의식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 자가용보유 인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술문화 변화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기자>